

개원 15주년 기념 세미나 결과 정리

이인배 |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조정연구실장

I. 세미나 개요

■ 때 · 곳 : 2010. 6. 18(금) 10:00~12:00,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

■ 내 용

- 충남발전연구원이 걸어온 길과 미래비전 청취
- “지역 경쟁력과 싱크탱크” 세미나
 - 국내외 선진 싱크탱크의 기능과 변화전망
 - 전국시도연구원의 연구실태와 발전방안

■ 참 석

- 좌 장 : 공주대학교 이해준 교수
- 발 표
 - 국토연구원 김영표 선임연구위원
 - 대전발전연구원 문경원 기획조정실장
- 토 론
 - 공주대학교 김경석 교수
 - 산업연구원 김선배 연구위원
 - 백석대학교 박종관 교수
 - 고려대학교 박종찬 교수

- 카이스트 박헌주 교수
- 고려대학교 이진상 교수
- 공주대학교 정환영 교수
- 중도일보 조성남 주필

Ⅱ. 주요 토론내용 요약

1. 연구원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

- 그 동안 충남발전연구원은 인력, 예산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여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 다만, 시야를 넓혀 수도권 연구원과 경쟁할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며, 미래비전을 재점검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연구원 경영성과에서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의 전환 필요하며, 싱크탱크와, 자료뱅크의 역할을 수행하여 충남발전연구원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임
- 연구원의 변화와 관련하여 연구원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탱크’ 보다는 ‘싱크’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해야될 일 보다는 하고싶은 일에 비중을 두어 자기개발을 통한 연구원 구성원이 ‘행복’ 한 연구원으로 변화되어야 함

2. 연구수행에 대한 평가

- 연구수행에 있어 용역발주기관과의 공동학습 및 협동연구시스템 구축을 통한 「CDI형 연구모델」은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타 연구원도 도입해야 하는 연구모델임
- 충남연 연구성과에서 국가적 이슈사업이 많은 충남에서 세종시, 소도읍종합육성계획, 국방과학클러스터, 2010세계대백제전,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성공적인 연구수행은 박수를 보냄
- 그러나 연구원 규모에 비하여 과제수가 너무 많고, 다양한 도정 현안을 지원하다 보

니, 연구의 질 문제 발생이 우려되므로 개선방안이 요구됨

3. 연구원의 역할 및 방향

- 연구원의 현재 부서별 규모가 과다하므로 조직개편이 요구되며, 또한 상호 다른 전공 연구원간 프로젝트 중심의 통합적 조직인 매트리스 조직화가 필요
- 연구원의 역할로 리더, 서포터로서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권자와 상호 협조를 통한 파트너 관계가 필요
- 지방 연구원은 다양한 전공분야를 요구, 예산의 한계, 네트워킹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충발연의 고민은 타 모든 연구원의 고민이므로 연구인력의 부족한 현실에서 최대한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
- 학·연·산 및 지역대학과의 MOU체결에 따른 실질적인 교류활동 및 공동연구 실시, 연구결과물이 지역과 공유되어야 함
-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을 충남발전연구원과 연계를 통한 정책교육, 도민관련 교육, 고위 공직자 교육 실시 등 연구와 교육의 일체화 필요
- 충남발전연구원이 일류연구기관으로 가기 위한 방향
 - 연구경영과 관련 연구원 개별 전공과 유관된 전공과 묶어 T자형으로 전환
 - 연구방향은 국내 트렌드를 모니터링
 - 재정은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
 - 대외협력과 관련 외부 전문가와 네트워크 구축
 - 선진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추진 및 지식정보 교류 활성화
 -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개도국에 대한 경험 공유
 - 충남발전연구원 '비전2020'을 잘 파악하여 향후 10년 이후의 모습에 대비

4. 연구수행 방향

-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연구기관으로서의 연구분야에 대한 비전과 전략설정이 필요
- 시도 연구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산업분야로 시·군단위 특화산업 육성, 전략산

- 업, 성장 유망성 등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 개별 연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모습과 그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측면을 생각하고 구체화하여야 할 것임
- 기본연구에서 정책현안연구로의 전환 요구 및 연구결과에 대하여 전국학회지에 게재
-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과제는 도, 시군에 연구T/F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과제 도출 및 실효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 고객지향적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
- 객원연구원 및 외부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공동연구 활성화 필요
- 민선5기 시작으로 다양한 연구수요 예상, 지역특색 및 여건을 반영한 연구, 차별화된 연구를 수행하여 민선5기의 중심역할 요구
- 대구·경북연구원과 같이 대전·충남발전연구원간의 상호 공동연구 및 통합연구가 필요

Ⅲ. 토론 내용

□ 김경석 교수

- 국가적 이슈사업이 많은 충남에서 세종시, 백제문화제, 도청이전 등 성공적 연구수행에 대하여 박수를 보냄
- 충남발원은 10~20년 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에 대하여 고민을 해야함, 즉,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개인이 ‘행복’한 연구원이 되어야 하고, 현재까지는 탱크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탱크보단 싱크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하며, 해야 될 일보다 하고싶은 일쪽에 비중을 높이 두어야 함
- 연구원의 역할로는 리더, 서포터로서의 역할이 상충되기 위해 상호 협조를 잘 해야하며, 정책결정권자와 소통을 통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야 함

□ 김선배 연구위원

- 연구원의 연구분야에 대한 비전과 전략설정이 시급함, 따라서 지역경제의 바람직한 모습 발전, 효율적인 달성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다듬어나가야 함
-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구기관으로서 개인의 연구를 광역경제권에 확대할 것인지? 를 고민하고 그에 따른 위상과 역할, 전략수립을 세워야 할 것임
- 시도연구원에서 해야 할 산업분야에 대하여 생각을 해야 함, 즉 시·군 단위 특화 산업 육성, 전략산업, 성장유망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 필요
- 연구원 전체의 개별 연구자들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모습과 그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측면이 각 연구분야에서 생각되어지고 구체화되어져야 할 것임

□ 박현주 교수

- 총발연의 고민은 타 모든 연구원의 공통적인 고민이므로 연구인력이 부족하고, 연구양은 매우 과다하므로 최대한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 실정에 맞게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
- 연구원의 인력·예산 한계 극복을 위해 조직의 개편 검토 필요하며, 상호 다른 전공 연구원간 프로젝트 중심의 통합적 조직인 매트릭스 조직화가 요구되며, 전공이 다른 사람들로, 특히 선임과 연구원을 섞어서 구성하고, 전공중심으로 구분하지 말고 프로젝트별로 대응체 구성 요구
- 총발연이 일류연구기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 연구방향에 있어서의 국내 트렌드 모니터링(경제성장→경제소비, 양적성장→질적성장) 필요
 - 연구경영과 관련하여 상근 연구인력을 하나의 전공과 유관된 전공과 묶어 I→T 자형으로 전환
 - 재정문제는 주어진 예산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하고, 우수연구진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 검토
 - 대외협력은 지역대학교수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연구과제는 도민 입장에서 과제를 선정할 필요

□ 이진상 교수

- 연구기관의 미래과제는 연구의 창의성, 연구의 적시성 및 실용성 요구, 연구의 다양성, 연구결과의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됨
- 충남발전연구원의 과제로는 선진국의 연구기관 공동연구 추진 및 국제개발 협력연구를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경험을 개도국에게 전파할 필요
- 충남발전연구원 비전2020을 잘 파악하여 향후 10년 이후의 모습에 대비해야 할 것임

□ 박종관 교수

- 충남발연의 기본연구 -> 정책현안연구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바, 연구원이 한,두 분야의 핵심 전문가(달인)가 되어야 하고, 연구결과에 대하여 전국지에 게재하여 전문가로 성장해야 함, 그에 따른 인센티브와 지원이 필요함
- 충남발연의 연구는 학회 연구과제가 아니므로 시군이나 시도 추진연구는 전부 고객지향적이어야 함, 따라서 도, 시군에 연구동아리의 구성, 코칭을 통해 과제 도출 및 연구 실효성 제고 요구
- 연구성과 전달 방식의 개선을 위해 핵심내용 요약하고 보고 자료화해서 전달, 전달방법의 연구원간 교환 학습 요구
- 10년도 연구방향으로 규제개혁 과제 평가 대비 필요, 도청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과 인근 시군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방안 등의 연구 필요

□ 박종찬 교수

- 연구원의 성장(예산, 양적규모 등의 면에서 안정적 구조에 접어들음)에 찬사를 보냄, 다만, 경쟁에 있어서는 시야를 넓혀서 수도권연구원과 경쟁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
- 연구원의 양적성장 -> 질적성장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므로 다른 연구원과 경쟁을 위

해 연구의 차별화, 연구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분야의 최고”가 되도록 해야 함

- 객원연구원, 외부연구원 초빙을 활성화 하여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필요
- 민선 5기의 시작으로 연구에 대한 수요가 예상되므로 지역적 특색, 상황을 반영한 연구, 차별화된 연구가 필요

□ 정환영 교수

- 충발연의 양적, 질적으로 발전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며, 향후 충발연의 위상을 높여야 함
-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과 연계하여 정책교육, 도민관련 교육, 고위공직자·지자체 교육 등을 실시하여 연구와 교육의 일체화 요구
- 학·연·산, 지역대학과의 MOU 체결의 경우, 형식적인 교류가 아닌 실질적인 교류가 요구됨

□ 조성남 주필

- 연구수행에 있어 전문성, 독립성, 창의성 필요하므로 질적인 면에서의 향상을 위하여 용역과제를 줄여야 함
- 연구원의 연구결과물이 이메일서비스 시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과 공유되어야 함
- 대구·경북연구원과 같이 대전·충남발전연구원간의 상호 공동연구, 통합연구가 필요

□ 좌장 이해준 교수

- 충남발전연구원은 개원 15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 인력, 예산 등 양적규모면에서는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음
- 도정 전반의 기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뿐 아니라 코칭기능을 강화하였고,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기관 내부에 T/F를 구성하여 공동학습하는 CDI 연구 모형을 구축하였음
- 향후 충남발전연구원은 연구수행에 있어서 독립성, 선도성을 갖고 충남지역의 경쟁력, 특화전략을 바탕으로 “싱크탱크”와 “자료뱅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연구원 위상강화에 노력을 부탁함
- 민선5기의 시작으로 다양한 연구수요 예상, 지역특색 및 여건을 반영한 연구, 차별화된 연구를 수행하여 민선5기의 중심역할 당부